

# Priya Sundaravalli

프리아산드라발리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무한한 표현의 자유이다. 그 중 하나는 재료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실험적이라 할 수 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세라믹창작센터에 지원할 당시 어떤 작업을 보여주어야 할지 명확한 계획이나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분청사기에 매료되었다는 점과 설치작업을 하고자 했다는 점은 명확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강렬했다. 나는 창작센터에서 유일한 외국작가였으며 매 순간 소통이나 대화가 불가능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 이는 순전히 명상의 시간(long Vipassana session)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에서 시각적이며 감각적인 피난처를 찾아야 했던 내게 오히려 일종의 축복이었다.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을 완전히 받아들여 - 한국 애호가가가 되거나, 이를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었다. 한국과 한국의 문화가 순수하며 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국을 사랑하는 애호가가가 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은 관대하며 감성이 풍부하고 마음이 따뜻했으며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동체 지향적이었다.

나의 작업은 매화나 목련, 모내기, 그리고 미술관 주변의 풍광과 같은 계절적 변화를 보여주는 미묘한 시각적 단서들, 민화와 판소리, 화산섬 제주도의 매력, 한국 도자의 아름다움과 같은 한국의 모든 것에 곧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도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면면히 생명력을 이어왔다. 전통도자나 현대도자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공존해왔다. 나는 한국도자의 발전에 경계가 없음을 깨달았다. 모든 표현이 가능했고 허용되었다. 그리고 "미"와 "추"에 대한 개념이나 양면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유형의 표현이 하나의 포괄적인 스펙트럼의 일부로 수용되었다. 이는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내가 머물렀던 장소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발견한 것은 이러한 "무경계" (boundary-less-ness)의 상태였다. - 작가노트 -



흘날리는 갈잎 속에  
나는 이 가을 나를 모두 잃고 내가 산다.

I live this fall  
Lost by myself  
What a delight

세라믹, 나무, 낙엽, 가변설치, 2014  
Ceramics, Wood, Leaves, variable, 2014



보름달 밤, 당신은 미지미지의 친구에게  
 많은 지혜의 말씀 가득히 실은 향기로운 꽃수레를 굴러 보낸다

세라믹, 가변설치, 2014  
 Ceramics, variable, 2014

On the full-moon night  
 You rolled a fragrant flower-cart  
 Laden with words of pure wisdom  
 To an unknown friend

What I learnt in Korea was a limitless freedom of expression. In an art residency, one is not making material with a market in mind – it is purely to experiment. When I applied to the Clayarch Gimhae Museum for the 4-month ceramic residency, I had no clear plan or idea what I wanted to manifest. But two things stood out – that Korean Buncheong style of pottery captivated me, and that I wanted to create installations...

The Korea experience was intense. I was the only foreign resident communication or conversation was impossible beyond a minute. I remember most of my time being one of 'Silence' – it was one long Vipassana session! But that was a blessing because I was forced to fling myself at visual or sensory life jackets that were around me. The only way to retain my sanity was to swallow Korea into myself and make it a part of me – to adore it. The adoration was easy as Korea and its culture has an honest and down-to-earth beauty. The people are generous, emotional, warm, full of vitality and community oriented...

Soon my works began to respond to all things Korean... to subtle visual clues of seasonal change, the blossoming of the cherry and magnolia trees, planting of the rice fields, the landscape around the museum, Korean Minhwa(민화) paintings and Pansuri(판소리) music, the call of the volcanic Jeju-do, and of course the earthy beauty of Korean pottery...

Korean pottery has an ancient base and unbroken life to the present times. Both the traditional and the contemporary exists side with side with equal importance given to both. I perceived Korean pottery as having no boundaries in its evolution - either backwards or forwards. All expression exists and is allowed to exist. There is no concept of 'beauty' or 'ugliness' – the duality does not exist. All forms of expression are accepted as being part of one large sweeping spectrum. And what a freedom is that!

It was in this state of 'boundary-less-ness', that I found my place and myself. - Artist's talk -